

To. 윤서

안녕 윤서야? 난 김승예라고 해. 너의 당당한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방법을 물어볼려고 이렇게 편지를 써. 할머니께서 암진단을 받고
너의 집에 지내실 때 많이 힘들었을텐데 내색하지 않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 지내는 너가 정말 멋져보였어, 어떻게 그 힘든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도 많았을텐데?
그리고 또 할머니께서 돌아오는 생일에 생전 첫 장례식을 한대니
그 말이 더욱 마음에 걸렸을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윤서야, 내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도 너처럼 힘든 상황에 내 기분과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지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싶어서야. 갑자기 질문을 많이해서 당황스러웠지?
미안해~. 그리고 난 잔치같은 할머니의 생전 장례식을 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어. 할머니를 위해 영상편지도 만들고,
특히 윤서 너가 마이크를 들고 할머니께 말을 하는데 그때 너가
그때 너가 눈물을 흘렸잖아. 근데 그때 나도 눈물을 흘릴 뻔 했어,
어린나이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참았을 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엄마처럼
챙겨주셨던 할머니를 보내야하는
생각에 더욱 울컥했지? 괜찮아!
힘을 내봐~



할머니께서 매일 매일 하늘에서 보고 계실텐데 윤서 너의 속상한
얼굴을 보시면 할머니께서도 덩달아 속상해하실거야~ 그러니깐
우리 같이 힘을 내보자! 그리고 마냥에 너가 이 편지를 읽게된다면
꼭 방법을 알려줘~ 그때까지 내가 곁에서 널 응원할게
-2022년 8월 10일 윤서를 본 받고 싶은 승예가-

